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전남관광 매력 속으로”

●전남도 12월의 추천 관광지 4곳

지역 특산물 활용 해남 고구마빵·영암 무화과샌드 담양 죽순빵·구례 밀빵 등 겨울 ‘남도 품미’ 가득

전남도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해남군, 영암군, 담양군, 구례군 등 4곳을 12월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영암 무화과샌드는 영암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버터크림과 함께 속을 채운 이색 디저트다. 영암은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도 품질이 뛰어난 무화과 생산지로 유명하다. 영암에서는 무화과 본연의 단맛을 살린 무화과 스콘, 무화과 허니브레드, 무화과라떼 등 맛 좋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넓은 영암호 위를 건너는 솔라

시도대교, 영암의 도기문화 역사를 체험할 영암도기박물관, 레이싱 드라이버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암국제kart 경기장 등 역사부터 문화, 자연 등 다채로운 여행지가 매력적이다.

해남 고구마빵은 해남에서 생산한 고구마와 해남쌀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구마 생산지다. 고구마빵 앙금에는 고구마 외에 어떤 첨가물도 더하지 않아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좋다. 타르트, 피낭시에도 맛보며 해남 고구마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다.



전남도가 12월의 추천 관광지 고구마빵, 무화과샌드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해남군·영암군·담양군·구례군 등 4곳을 선정했다. <전남도 제공>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내륙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 풍경이 아름답다. 두륜산 정상까지 탐방하는 두륜산케이블카, 이순신 장군

의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우수영관광단지,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땅끝마을에서 해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담양 현미 죽순빵은 담양의 특산물인 죽순을 다져넣고 현미로 반죽해 고소한 풍미와 함께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대나무 케이크, 죽순 귀리 파이 등 다양한 대나무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오는 24~25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담양산타축제’가 열린다. 산타패레이드, 야경 포토존 등을 즐기며 낭만적 연말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세계질 내내 푸르른 대나무 숲 죽녹원, 조선시대 조성된 숲 관방제림,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배울 수 있는 가사문학관, 한국 전통 정원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소쇄원 등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 많다.

구례 밀빵은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빵이다. 구례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산물로 유명하다. 특히 구례에서 재배된 밀은 품가가 높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화학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살린 건강한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자락의 통일신라 사찰 화엄사, 세계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천은사 상생의 길, 다양한 식물과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해 알아보는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등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만끽할 명소가 많다.

심우정 관광과장은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전남의 품미를 만끽할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따뜻한 연말 보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쓰레기수거차 사고 빈발...안전장치 필요”

정다운 시의원 “市, 관련 예산 미반영...예방 대책 마련을”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쓰레기수거차 참변에도 안전 사양을 갖춘 차량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은(더불어민주당·북구2)은 5일 기후환경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수거차량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광주시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 쓰레기수거차량 13대 구입비 8억3천만원이 편성됐다”며 “신규 차량의 경우 다양한 안

전장치를 갖추고 있지한 기존 보유 차량에는 사고 예방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1월에는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1대가 전도돼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5개구 쓰레기 수거차에 설치된 차량용 안전장치 3800여 대 가운데 설치 현황은 185대로 69%에 머물고 있다.

자치구별 설치비율은 ▲광산구 92%/67



대) ▲서구 88%(43대) ▲북구 83%(40대) ▲동구 67%(23대) ▲남구 0%(0대)다.

광산구의 경우 어라운드뷰 설치가 90% 이상인 반면, 남구는 0%로 지자체 별로 설치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자체별로 안전장치 설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도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장치 설치의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온기 넘치는 사랑의 김장김치 5일 광주 북구 두암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서 주민 자치회, 통장단, 자생단체 회원들이 돌봄이웃 세대에 전달할 김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市, 내년 노인일자리 1천551억 쓴다

3만6천348명 창출...올해비 12.3% ↑

광주시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천551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5일 시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열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했다.

광주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직종 개발·노인 우선적 고용 권장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내년 광주 노인일자리사업은 ‘든든한 노후, 보람있는 광주’를 비전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인인구 34만9천455명 중 10% 수준인 3만6천348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성과지표로 삼았다. 이는 올해 3만2천370명보다 3천978명(12.3%) 늘어난 것이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姜시장 “시민 일상 안정 지키기 만전”

공공기관장 회의...“공직 기본 소임 최선” 당부

강기정 광주시장은 ‘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정국과 관련해 5일 지역 공공기관장들에게 시민 일상 안정지키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공직자의 기본 소임은 시민

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의 과정이 참으로 길고 힘들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 달라”

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삶의 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장들은 기관별 소관 사무를 점검하고 업무가 아닌 외부 일정은 자제하기로 하는 등 시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달라”며 “후속 조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변은진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